

# 휠체어 체험한다던 박시장... 두달 지났는데 아직 '조용'

“보여주기식” 비판 여론에 무산  
11월 13일, 현장 점검으로 대신  
개선방안은 아직도 ‘계획단계’

‘삼양동 옥탑방 살이’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두 번째 체험 행정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휠체어 체험’이 지난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약자 현장 점검으로 심급게 끝났다. 이로 인해 교통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개선 방안은 아직 계획 단계이다”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진 청년의원의 질의에 하루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휠체어 대중교통 체험은 무산됐다. 체험 행정이 ‘보여주기식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박 시장은 작년 11월 13일 교통 약자와 서울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현장 점검으로 체험 행정을 대신했다. 이날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체험 행정 이후 이동권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장애계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강북구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친 직후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지난해 8월 19일 옥탑방 살이를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 구상안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약자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현재 검토 중이다”며 “민선 7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확

충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전에 발표한 ‘장애인이 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307개 전 지하철역의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동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화진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열린 서울청년의회에서 장애인 승객의 탑승 의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저상-일반 버스의 규칙적인 배차 간격, 버스 기사에 대한 장애인 응대 교육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어르신 고독사 막는 ‘우리동네 돌봄단’

서울시, 올해부터 10개 자치구 확대

서울시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을 올해 10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웃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됐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7개 자치구(노원·금천·동작·강남·동대문·서초·은평) 78개 동에서 282명의 돌봄단을 운영했다. 올해에는 10개 자치구 136개 동에서 294명의 돌봄단원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살필 예정이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주민들로 선정된다. 월 48시간, 주 3일 1일 4시간 내로 활동한다. 시는 돌봄단에게 매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2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난해 5804가구를 4만6041회 방문했다. 전화상담은 3만 1049건 실시했다. 관리하는 대상 가구에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 모습.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긴급지원 신청 등 공격 서비스 255건, 쌀·김치 등 민간자원 1만 5219건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계하기도 했다.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우리동네 돌봄단이 이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이웃 간 온정이 두터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철도차량 유지보수 ‘국제표준규격 인증’

서울교통공사  
“안전성 확보·해외 진출 가속도”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운영기관에 이어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 ISO/TS 22163 인증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취득하게 됐다. 공사가 인증받은 ISO/TS 22163은 철도산업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이다.

공사는 국제표준규격 인증 취득으로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제적 기



티유브이 라인란드 카스텐 리네만 한국지사장(오른쪽)이 서울교통공사 한재현 차량본부장에게 ISO/TS 22163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술·운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ISO/TS 22163은 고도화된 품질관리와 향상된 프로세스를 보증, 해외 시장에서 철도 관련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자들

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인증 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이다.

공사는 전동차 유지보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유지보수 과정 문서화와 기록 누락 방지, 품질·안전 방침 공유,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적격성 확보 등을 통해 이번 인증을 취득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철도 분야 국제 품질 표준인 ISO/TS 22163에서 제시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전동차 유지보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지하철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428만명 찾은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더 좋은 서비스 위해 머리 맞댄다

연간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는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방향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은 지난 2015년 시범 운영 이후 이듬해부터 매주 주말 여의도와 반포, 청계천 청계광장,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상설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7회 열려 428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푸드

트럭 189대, 핸드메이드 상인 317개 팀이 참여해 총 1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밤도깨비 야시장의 개최 장소와 시기, 참가상인 모집과 선정 방안 등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한 참가비 산정 기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친환경 용기 사용, 야시장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수단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일 오후 2시 시청 8층 다목적홀로 오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이 상인에게는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더욱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취약계층에 세탁기 1000대 지원

리사이클센터 사회공헌 행사수익금

서울시가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 세탁기 1000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리사이클센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사회복지관협회와 7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부 전달식을 포함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은 전국 리사이클센터 중 8곳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행사 수익금으로 세탁기 새 제품을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

리사이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11개 지자체를 돌며 세탁기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에 1000대의 세탁기를 지원한다. 수혜자 중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1000세대에 세탁기를 배분한다.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880대,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100대, 사단법인 솔아를 통해 20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